■ 남북 신 경협시대 개막

南 기술력·北 노동력 '상생 프로젝트'

서해특별지대 '긴장 현장→생산 현장'

'퍼주기 논란' 극복 재원 확보가 관건

◇진일보한 경제협력사업=개성공단과 해주, 주변수역 등을 함께 묶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한 간 충돌이 가장 많았던 한반도의 서쪽 허리부분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치하고 북한의 해주항에 제2경제특구를 건설, 남한의 관문인 인천과 직접 연결하는 초대형 평화프로젝트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현재 이 부분에 존재하는 북방한계선(NLL)을 어떻게 할 지를 정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남측의 보수진영으로부터 영토개념을 희석화한다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과연 대통령의 희망대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 구상이 성공하면 북한은 침체된 경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남한 역시 북한과의 접경 문제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서북부 지역이 활기를 띠는 것은 물론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허브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돼 선진국 도약에 견인차로 작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단순히 연결하는데 그쳤던 도로·철도 연결사업도 개성~평양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를 보수해주고 남북한이 공동이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이에 맞물려 개성공단 2단계 사업도 조기에 착공키로 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남북한 경제협력위원회에서 다양한 준비를 할 전망이나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기대하는 만큼의 추진력을 발휘할지는 두고봐야 한다.

◇재원 없으면 헛구호=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퍼주기는 없다. 새로운 경협은 남한의 기업이 미래 가능성을 좋게 보고 투자하는 양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 차원에서 준비할 재원은 많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회담이 끝난 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합의결과에 들어가는 비용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직접 비용만 5조원,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10조~50조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에서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이번 합의된 경협사업에 최대 112억달러, 한화로 10조2천6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투자성이 보이는 곳은 남한의 기업들이 자금을 대서라도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상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들은 남북간 긴장완화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경협비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확보해 놓은 내년 남북협력 예산은 1조3천억원, 이 가운데 사용용도가 정해진 9천억원을 빼면 쓸 수 있는 자금은 4천300억원 가량이다. 이 자금이 부족하면 정부는 예산을 투입,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 발행, 평화복권 발행, 공기업 활용 등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국민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둔 가장 큰 실질적 진전은 경제협력으로 평가된다. 10·4 선언으로 나타난 새로운 남북경협 내용은 기존의 남북한간 경협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할만 하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정착되면 남북간 첨예한 긴장의 현장이 평화와 생산의 현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도로·철도 연결사업도 도로 공동이용과 개성·문산간 화물열차 운행 등으로 한층 구체화됐다.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는 것도 세계 최고수준인 남한의 기술을 북한에 떨치면서 양측 모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생산적 프로젝트다.

뉴욕의 '세종대왕 어가행렬' 6일 미국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를 따라 41번가에서 24번 사이 도로에서 '제27회 코리안데이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이날 퍼레이드에는 육군국악대의 취타대 행진에 맞춰 세종대왕 어가행렬이 등장해 뉴욕커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연합뉴스

北 핵불능화·美 동의 선행돼야

■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연내 가능할까

올해 안에 평양 또는 서울에서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개시선언을 하는 '대형 이벤트'가 가능할 것인가.

평화체제 협상의 최고위 실무책임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7일 평화체제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남·북·미·중 4자 또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화두를 던졌다.

송 장관은 이날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구상과 관련,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당사국 정상들이) 종전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성사 여부와 관련, "추진하되, 노 대통령 임기를 염두에 두고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기 내에 이뤄진다,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과 천 대변인의 언급으로 추론해 보면 남북 정상은 선언문을 통해 미국 또는 미·중 정상에게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위해 한반도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4자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 및 시기 문제는 대략 미국의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달 7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때 북이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동서명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북·미 정상의 대면을 의미하는 이 이벤트의 전제는 검증가능한 비핵화 이행이었다.

또 중국 변수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내 당사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불능화 및 신고단계의 순조로운 이행, 북·미 정상이 포함된 다자회동의 조기 개최에 대한 미국의 'OK 사인', 평화체제 협상 참가국 문제에 대한 조기 정리 등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중국 배제 3자 종전회담 中정부 "수용 불가" 밝혀

중국은 남북 정상이 지난 4일 합의한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과 관련, 중국을 배제한 3자 정상회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 소식통들은 7일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당사국 정상회담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이미 간접적으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종전선언 당사국 정상회담 합의 조항을 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섭섭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제사회의 공조를 받아도 완수하기 힘든 문제를 주체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연합뉴스

북핵 불능화 작업 45일 걸려

美 기술팀 방북… 이달 중순 이후 착수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이 담긴 '10·3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 작업이 이달 중순 이후 착수되며, 불능화 실무작업은 45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오는 9일 미국의 핵기술자로 구성되는 전문가팀이 방북, 영변 5MW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과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불능화 대상 시설들을 둘러본 뒤 북한 측과 구체적인 불능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팀은 지난 달 11~15일 방북한 미·중·러 3국 핵전문가팀 단장을 맡았던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과 미국 측 전문가들로만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능화 방안은 올해 내에 완료하기 위해 제염 작업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3개 시설의 핵심부품을 제거한 뒤 북한 내에 보관하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의 감시를 받는 '특별관리'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거 대상 핵심부품으로는 5MW 원자로의 경우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제어봉을 움직이는 '제어봉 구동장치'나 냉각 펌프,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은 연료봉을 옮기는 크레인이나 연료봉 절단장치, 방사능 물질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밀폐투명용기인 글로브박스, 핵연료봉 제조공장은 우라늄과 화학물질을 섞는 반응로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뉴욕 필' 초청으로 드러난 김정일 父子 음악사랑

金위원장 對美 '음악 외교' 뜻 반영

차남 정철은 록밴드 결성해 공연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세번째 부인 고영희씨 사이에 태어난 차남 정철(26)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이자 록가수인 에릭 클랩톤의 열광적인 팬으로 그를 본따 보천보전자악단의 멤버중 일부를 뽑아 '새별조'라는 이름의 록밴드를 결성한 뒤, 자신이 직접 솔로 기타를 치면서 김 위원장 앞에서도 공연을 갖곤 한다.

정철의 이러한 음악적 재능과 기호는 아버지에게서 유전된 것이다.

평양 공연 계획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미국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말 공연이 실현될 경우 북한 로열패밀리의 음악적 재능과 '음악사랑'이 새삼 세인의 시선을 끌 전망이다.

지난 7월 북미간 베를린 회동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북미간 문화교류 차원에서 뉴욕 필을 지목해 초청의사를 밝힌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연말 뉴욕 필의 평양공연 때 김 위원장이 공연장에서 직접 감상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나의 첫 사랑은 음악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에게 음악은 '첫 사랑'일 뿐 아니라 '음악 정치'라는 통치구호로도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는 뉴욕 필의 평양공연 계획을 통해 숙원인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음악외교'로도 활용되고 있다. /연합뉴스